지붕 귀퉁이 뚫려 있어 집이 숨을 쉬지요

지붕에 환풍시설… 에어컨 없어도 쾌적
모든 건축 재료 캐나다산 백송만 사용
부산 신발공장 운영 성공… 2003년 귀향

■ 해남 화원면 김재관·임길자 부부 전원주택

'집이 살아서 숨을 쉰다'

해남군 화원면 면소재지에 들어서면 그림같은 2층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바로 김재관(55)·임길자(57) 부부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다.

미국식 목조주택인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집이 숨을 쉰다는 것이다. 지붕 양쪽 귀퉁이가 뚫려 있고, 지붕 위에는 환풍시설이 돼 있는 데 이곳을 통해 집안 내·외부 공기가 소통을 한다.

이는 미국 고급 주택에서 사용하는 환풍시설로, 여름철에도 에어컨 등 냉방시설 없이 집안에서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설치비용은 규모에 따라 500만원~1천만원까지 다양하다. 단점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미국에서 직수입해야 한다는 것. 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03년 김씨의 고향인 이곳에 제 2의 인생을 즐길 둥지를 틀었다. 아내 임씨는 해남군 계곡면이 고향이다.

부지면적 300평(건평 75평)에 2층 규모로 지었는데, 모든 재료를 캐나다산 백송으로 지었다. 토지 구입비 등을 합쳐 건축비용만 4억여원이 들었고, 정원 등 조경비용으로 2억 5천만을 투자했다. 해남에선 단독 주택으론 최고 건축비인 6억 5천여만원이 들어갔다.

1층에는 방 3개와 욕실 2개, 주방, 거실이,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1개를 마련했다. 특히 1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만 8m60㎝에 이른다.

하지만 김씨 부부가 이처럼 화려하게 귀향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화원면 매월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김씨 부부는 지난 88년 100만원을 가지고 무작정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중학교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김씨에겐 강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고기잡이 자체가 무리였기 때문이다.

한달에 5만원씩 하는 월세방에서 부산 생활을 시작한 이들 부부는 정착 초기 라면값 조차 마련하지 못해 끼니를 굶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때부터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5년 넘게 길에서 주워 피우기도 했다. 다행히 아내가 먼저 신발공장에 취업했지만, 당시 27만원의 월급으로는 한달을 버텨내기가 힘들었다.

이후 김씨도 신발공장에 입사를 했고,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96년에는 공장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이들 부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97년부터 직접 공장 운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직접 사업주가 되고보니,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이들에게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용품 전문업체 N사에서 신발 외부에 다양한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기술개발을 공모한 것이다. 김씨는 1년 2개월여의 노력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이후 1년여간 '기다려 달라'는 업체측의 답변만 반복됐다.

이때부터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단 직원들의 월급 날짜는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집은 물론 공장까지 모두 빚으로 넘어가기 직전 해당 업체로부터 신발 주문이 터졌다. 이후 이들 부부는 5년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 12시에 퇴근해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노하우는 다른 공장으로 빠져나갔고, 인맥도 없는 탓에 주문물량도 빼앗기기 시작했다.

김재관(오른쪽)·임길자씨 부부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씨는 "제작 단가를 낮추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인맥 하나 없는 객지에서 기술력이 유출되다보니 버텨내기가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동안 성공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이들 부부는 고향을 떠올렸다. 벌만큼 벌었으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씨는 "노후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돈을 벌고보니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다"면서 "귀향한 이후엔 행복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조선·화원관광단지 해남개발 중심축 급부상

■ 해남 화원면은

해남군 화원면은 낙후된 해남 개발의 중심축이다.

대한조선과 화원관광단지 등 해남의 미래를 이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화원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조선의 입성은 화원면의 지역경제를 바꿔놨다.

대한조선의 현재 수주잔량은 17만~18만t급 벌크선 42척으로 35억 달러(3조5천억원)규모다.

올해 수주목표만 23척 25억 달러(2조5천억원)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20일 1호 선박인 '미스틱(MYSTIC)'의 명명식을 거행했다. '미스틱'호는 대한조선이 지난 2006년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으로부터 수주한 8척의 벌크선 중 첫 선박이다. '미스틱'호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연인원 7만5천명(Man-Hour)이 동원됐다. 1년동안 수만명의 외지인이 화원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다.

화원면에는 또 남도해양 관광시대를 열어갈 화원관광단지도 들어서 있다.

화원면 주광리와 하봉리 일대 509만㎡(154만평)에 조성중인 화원관광단지는 현재 기반조성과 해수욕장, 골프장 등 주요 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18일 인공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10월에는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퍼블릭 9홀 골프장도 문을 연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